



최 근 돈가(豚價)는 양돈협회를 중심으로 한 전체 양돈농가의 전폭적인 협력에 힘입어 안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제야말로 양돈인 전체가 단결하여 양돈산업을 안정된 기반위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양돈산업의 발전은 질병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부단히 연구하고 실천해야만 가능하다. 실제로 양돈사업을 위협하는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 가장 피해가 많은 질병은 어떤 질병인지, 그리고 피해는 적지만 발병빈도가 높은 질병은 어떤 질병인지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이번 질병 칼럼에서는 미국의 양돈인들로 부터 여론조사한 결과를 우리나라의 실정과 비교·분석하여 피해를 줄여 나가야 할 질병, 대책을 수립해야 할 질병, 그리고 경계해야 할 질병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런넬(Runnels, L. J) 박사가 미국 양돈인들로부터 여론조사한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표 2 참조)

즉 손실이 가장 많은 질병 순위는 표 1 과 같다.

즉 자돈의 설사증, 유방염·자궁내막염, 무유증후군에 의한 자돈의 손실, 폐염(유행성 폐염 및 흉막폐염), 위축성 비염, 관절염 그리고 전염성 위장염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자돈의 설사가 가장 피해가 많은 질병으로 생각된다. 특히 신생자돈 설사증(조발성 대장균증), 3주령 설사증 및 이유전후 설사증은 발병율도 높고 피해도 많다. 그러나 자돈의 설사증은 직접적인 피해보다 간접적인 피해, 즉 성장부진에 의한 사료효율 저하, 출하일령 지연등을 초래하게 된다.

분만직후 분만모돈의 MMA 즉 유방염, 자궁

〈표 1〉 손실에 의한 질병 순위

순위	질 병 명	%
1	자돈의 설사증	38.2
2	유방염, 자궁 내막염, 무유증후군	17.4
3	폐 염	12.8
4	위축성 비염	10.8
5	관 절 염	8.0
6	전염성 위장염(TGE)	3.9
7	돈 적 리	3.0
8	오제스키병(가성 광견병)	1.6

NPPC (National Pork Producers Council) 조사

표 2. 가장 위험성이 있는 질병 순위

순 위	질 병 명	%
1	오제스키병(가성 광견병)	44.8
2	전염성 위장염(TGE)	19.1
3	돈 적 리	12.6
4	위축성 비염	11.7
5	기 타	4.5

NPPC (National Pork Producers Council) 조사

내막염, 무유증으로 인한 자돈의 피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철 외부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런 피해가 많다. 이런 경우 분만전·후의 사료조절, 분만 관리 철저, 포유시 유방 소독 및 유방 마사지, 분만사의 환기 및 청결, 돈사 소독 등 위생적인 사양관리에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최근 산후 무유증이나 저유증은 유전적인 요인도 작용한다는 주장도 있으므로 철저히 분만 기록부를 작성 운용하여야 하겠다.

하절기에는 자돈의 설사증 및 모돈의 무유증에 의한 피해가 크지만 봄, 가을 및 겨울에는 위축성 비염과 폐염의 피해 또한 크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폐염의 원인은 마이코플라스마에 의한 유행성 폐염과 헤모필러스에 의한 흉막 폐염이 대부분이다. 특히 헤모필러스 플로로뉴모니아에 의한 흉막 폐염은 우리나라의 많은 양돈장에서 발병되고 있으며 피해 또한 커지고 있다. 필자는 1980년에 이미 이 세균을 분리하였으며 요즈음에도 많은 농장에서 이 세균을 분리하고 있다. 이 질병은 돼지의 폐장에서 직접 헤모필러스균을 분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진단이므로 실험실에 의뢰하여 검사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질병은 연중 발병하고 있으나, 기온의 급변, 장거리 수송 등 사육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면 발병이 심하게 된다. 비육중인 돼지가 갑자기 폐사하여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항상 이 질병에 관심을 가지고 방역에 신경을 써야 되며 일단 발병하면 발병 초기에 항생제 투여, 환기 철저, 사양 환경 개선 및 이동전후 항생제를 예방 목적으로 투여하여야 한다.

미 국에서 관절염의 피해는 많은 것으로 발표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 관절염의 원인으로는 관절염형 돈단독, 포도상구균 혹은 연쇄상구균

및 코라이네박테륨에 의한 화농성 관절염, 헤모필러스 파라수이스(Hemophilus parasuis) 및 마이코플라스마 하이오라이니스(Mycoplasma hyorhinis)에 의한 다발성 장막염등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돈단독의 예방접종이 철저히 실시되고 있으며 돈사 소독에 의한 예방효과가 있어 큰 피해는 없는 실정이다.

전염성 위장염은 봄, 가을 그리고 겨울철에 경계해야 될 질병으로 백신접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월간양돈 85년 11월호 참조)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정확한 여론조사를 광범위하게 실시하여야 하겠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손실을 주는 질병으로서는 자돈의 설사증, 폐염, 전염성 위장염, 산후 무유증, 위축성 비염 등이지만, 미국에서 발병이 없는 돼지 콜레라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질병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돼지의 질병중에서 가장 위험성이 큰 질병 순위는 표 2 와 같다.

미국에서는 오제스키병, 전염성 위장염, 돈적리 순으로 나타났다. 오제스키병(일명 가성 광견병)은 미국, 일본, 대만 등지에서 많이 발병되고 있으며 피해 또한 큰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가축위생연구소에서 혈청학적 조사 결과 항체가 존재하지 않아 발병이 없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질병으로는 돼지 콜레라, 흉막 폐염, 전염성 위장염 및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이러스성 설사증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질병은 오제스키병(가성광견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철저한 검역과 주기적인 역학조사 및 혈청검사로 발병 유무를 확인하면서 이 질병에 대하여 양돈인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